

孟子研究

第 2 輯

韓國孟子學會

1999

孟子研究

第2輯

韓國孟子學會

1999

孟子研究 第2輯

發行日: 1999年 6月 30日

發行人: 趙 駿 河

編輯人: 李 明 洙

發行處: 韓國孟子學會

서울市 城北區 月谷洞 同德女大 教養學部

Tel: 02) 940-4123

製作處: ICP企劃

Tel: 0351) 841-0120

(非賣品)

刊 行 辭

人慾 存天理는 <<孟子>>七篇의 要義다. 肉體的인 人慾을 節制하여, 本性의 天理를 마음 속의 主人으로 存在하게 하라는 뜻이니, 바로 人格 修養의 問題이다.

오늘날 西洋의 잘못된 價値 體系와 人慾의 無限한 競爭에 의하여, 世界는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自然을 征服의 對象으로만 보는 그들의 自然觀으로 하여, 生態界는 破壞되고 汚染됨으로서 災殃은 續出하고 있는데도 世界 各國은 競爭의으로 自然破壞와 汚染을 增加시키고 있다.

이렇게 問題가 深刻하게 되는 것은 人慾의 問題이다. 自由 平等 權利만을 最上의 德目으로 알고, 惡人과 善人에게 平等한 自由와 權利를 賦與함으로써, 惡人 犯罪人들의 天國으로 變하여 버린 世界的 現象, 慾望의 自由競爭을 無制限 許容함으로서 富益富 貧益貧의 深化를 招來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 數字만 많다고, 無智한 大衆들의 意思에만 迎合하다가 愚衆政治가 되어 버린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破壞하다 보니, 靑少年들의 犯罪 問題와 老人들의 疏外 問題는 날로 深刻하게 되어 가는 現象, 人間은 原罪를 지니고 태어난 絶對惡이라고만 보는 人間觀으로 人性教育, 道德教育을 疏忽히 하여, 不正腐敗는 天下에 蔓延하고, 사람이 사람을 輕視하고, 심지어는 子弑其父하는 일 까지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西洋의 잘못된 價値 體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그 代案으로 東洋의 傳統的인 價値 體系와 人性教育 등에 대하여 再檢討, 再照明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東洋의 自然과 人間을 相輔 關係로 보는 致中和의 自然觀으로 自然과 人間의 共生 共榮을 누리게 하고, 自由 平等 權利보다 人間의 道理를

于先하게 하여 犯罪을 豫防함으로서 善良한 國民들의 天國이 되도록 하고, 富者 强者들의 慾心을 自制케 하여, 均衡있는 經濟發展과 福祉를 이루게 하고, 相扶相助하는 傳統的인 大家族制度의 精神을 復活시켜, 青少年 犯罪問題와 老人들의 疏外 問題를 解決하고, 人間은 純善한 本性과, 相對的인 惡이 될 수 있는 氣質之性을 同時에 타고났다고 보는 人間觀으로 人性을 徹底히 教育하는 制度 등을 再照明하지 않을 수 없다.

孟子는 當時에 孔子의 바른 思想을 흐리게 하는 異端, 즉 楊朱의 爲我主義와 墨翟의 兼愛思想 등의 理論을 痛駁하면서, 異端을 洪水와 猛獸에 비긴 바가 있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 異端의 被害는 洪水나 猛獸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은 孔 孟의 바른 學問이 밝혀지지 못해서 이며, 우리 學者들의 責任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1995년 孟子의 故鄉인 中國 鄒城에서 舉行된 孟子學術思想國際研討會에 參席하고 孟墓를 參拜하였는데, 墓所의 床石과 香爐가 破壞된 채 放置되어 있는 것을 보고, 鄒城孟子學會 會長에게 建議하여, 새로이 上席과 香爐와 亞聖林碑를 만들고, 1996년 1월 5일 告由祭를 지낸 후, 第一次 孟子思想學術研討會議를 鄒城에서 舉行하고, 1997년 孟子研究創刊號를 刊行한 후, 7월 29~30일 제2차 孟子思想學術研討會議를 鄒城에서 舉行하고, 曾子의 故鄉인 嘉祥縣에 가서 曾子의 廟와 墓를 參拜하였는데, 曾子의 墓所는 封墳마저 破壞된 채 放置되어 悽慘하였다. 나는 돌아와서 嘉祥縣 文物局에게 建議하여, 曾子의 墓를 一部는 復原하였으나, 지금까지 完成을 하지 않고 時日만 遷延하고 있어 告由祭祀도 學術會議도 進行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한편 洛陽의 二程子 墓所를 參拜하고, 石物이 破壞된 것을 보았다. 나는 伊川先生의 28代孫인 程德祥씨에게 建議하여, 床石과 香爐와 林碑를 完成하고, 1998년 7월 12~15일 中國 洛陽에서, 二程夫子林碑除幕式을 舉行하고, 二程子 墓所에 告由祭祀도 올리고, 洛陽大學에서 第一次韓中

程朱學術研討를 舉行했다. 돌아오는 길에 陝西省 眉縣에 있는 張橫渠先生의 祠堂과 墓所를 參拜하였는데, 역시 墓所는 雜木 속에 묻혀 있을 뿐, 床石도 香爐도 모두 破壞되고 없었다. 나는 다시 橫渠先生의 28代孫에게 墓所의 修理를 建議하였고, 石物은 현재 進行中이다. 여기 張橫渠先生의 墓所의 石物이 完成되면 금년 7月末경에 다시 韓國學者들과 中國學者들이 모여서 告由祭祀도 올리고 學術會議도 舉行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先聖 先哲들의 山所에 石物을 新修하고, 告由祭祀를 올리고, 學術大會를 開催하는 것이 주체넘은 일로, 僭濫한 罪를 免할 길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時代에 斯道를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一念에서 東奔西走하는 것이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오, 이름을 얻기 위함은 더욱 아니다.

韓國孟子學會에서는 이제 2년만에 <<孟子研究>>誌 第二輯을 刊行하게 되었다.

이에 玉稿를 보내 주신 國內外 많은 學者님들께 深深한 感謝의 뜻을 傳하고 싶다.

끝으로 本 學術誌를 刊行하는데 많은 手苦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金恒洙教授, 李文周博士, 李明洙 博士, 金德均博士, 曹敏煥 博士와 千雄社長께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1999년 6월 1일

韓國孟子學會 會長 趙駿河 謹識

序 文

“遏人欲，存天理”，為<<孟子>>七篇之要義。即是指節制肉體之人欲，抵制過分的欲望，讓本性之天理作為我們內心的主人而存在的意思，也就是所謂人格修養的問題。

如今，由于西洋錯誤的價值體系和人欲之無限制的競爭，使得整個世界不得不直面危機。依照他們的把自然只是視作征服對象的自然觀，生態界便被肆意地破壞·污染，從而導致連綿不斷的災禍。不但如此，由于世界各國間相互競爭的緣故，使得破壞·污染自然的現象繼續不斷地增加。

如此使問題變得越來越嚴重的根源，正是由于人欲之問題所在。只知道追求自由·平等·權力等最高目標，在惡人和善人面前，由于都賦予平等的自由和權力，就使得這個世界變成了惡人·罪人的天國。因欲望之自由競爭被無限制地容許，而招來富益富·貧益貧進一步深化的資本主義經濟體制，其實只剩下了許多數字的東西。在只是一味地迎合無智大眾意志的同時，使得政治制度又變成了愚衆政治式的自由民主主義之政治體制。傳統的家族制度被破壞以後，青少年犯罪問

題以及老人被疏遠的問題，已成為日漸深刻的社會現象。只是擁有人帶着原罪出生的被稱為絕對惡的人生觀，而忽視了人性教育及道德教育，以至使不正腐敗于天下蔓延，人輕視人自身，甚至連子弑其父的事件也接踵而生了。

所有這些，都可看作是由于西洋錯誤的價值體系而造成的惡果。作為對策，將東洋傳統的價值體系和人性教育等，作再檢討·再照明的呼聲便越來越高。

由相輔相成的關係來看待東洋的自然和人即致中和的自然觀，就使得自然與人能夠享有共生共榮的關係。比起自由·平等·權力來，更優先考慮的是作人的道理，因而可事先預防犯罪，也就可以營造一個善良的國民的天國。讓富者·強者的欲心得以自制，實現均衡的經濟發展與福利建設，使相扶相

助的傳統的大家族制度之精神得以復活，從而可解決青少年犯罪和老人被疏遠的問題。以認為人之純善的本性和由相對惡所形成的氣質之性，同為人先天之本性的人生觀，也就使得徹底的人性教育制度不能不得到再照明。

孟子對於當時企圖動搖孔子正道思想之異端，即楊朱的為我主義和墨翟的兼愛思想等一些似是而非的理論，予以痛斥的同時，還將異端比作洪水猛獸。

然而，從當今社會來看，異端之害處甚至比洪水猛獸還要嚴重得多。這正是由于孔·孟之正道學問沒能得到很好闡明的緣故。在這個問題上，我認為我們這些學者們負有很大的責任。

本人于1995年，參加了在孟子故鄉－中國鄆城舉行的孟子學術思想國際研討會，並參拜了孟墓。看到放置着被破壞掉的墓所的床石和香爐，本人即向鄆城孟子學會會長提出建議，結果建造了新的上席·香爐和亞聖林碑，并于1996年1月5日，施行告由祭祀以後，還在鄆城舉行了“第一次孟子思想學術研討會”。1997年，<<孟子研究>>創刊號刊行之後，于7月29-30日，又在鄆城舉行了“第二次孟子思想學術研討會”。這以後又去曾子的故鄉嘉祥縣，參拜了曾子廟和墓，沒想到曾子的墓所，連封墳都被破壞了，其情形十分淒慘。本人回來之後又向嘉祥縣文物局提出建議，目前曾子的墓已經被復原了一部分，只是還沒能得到完全修復，時間一天天過去，告由祭祀和學術會議都還無法進行，我們所能做的就只有等待了。

此外，還參拜了洛陽的二程子墓所，也是見到了被破壞的石物。本人即向伊川先生的28代子孫程德祥先生提出建議，結果床石·香爐和林碑皆已重建完工，于1998年7月12-15日，在中國洛陽舉行了二程夫子林碑的揭幕式，并于二程子墓所施行了告由祭祀，同時還在洛陽大學召開了“第一次韓中程朱學術研討會”。在回來的路上，還參拜了座落在陝西省眉縣的張橫渠先生的祠堂和墓所，同樣也是墓所被冷落在一片雜草叢中，床石及香爐也全都被破壞掉了。本人又向張橫渠先生的28代子孫張世敏先生，提出了修理墓所的建議，目前石物正在修建中。張橫渠先生墓所的石物完成之後，大概于今年7月末左

右，韓國和中國的學者們將再次聚集，施行告由祭祀，同時召開學術會議。

象我們這樣，將先聖·先哲墓所的石物重新修建，施行告由祭祀，並召開學術大會的舉動，對此，我們不是不知道會有妄自尊大之闕，也免不了會犯出風頭之罪。然而，我們認為只要是對闡明當今時代之斯道，能有哪怕是一點點幫助的話，我們都將不辭勞苦，盡力而為。抱着這個信念，我們東奔西走，忙活一氣，實在不是因為錢多了沒處花，更不是為了日後能夠名垂青史的緣故。

如今，韓國孟子學會的學術刊物—《孟子研究》，在經過了2年之后，第二輯終於發刊了。

在這裡，我們要向多位寄來玉稿的國內外學者們，致以我們深深的感謝！

最后，還要向在本學術刊物刊行期間，不辭辛苦，給予我們很大幫助的金恆洙教授，李文周博士，李明洙博士，金德均博士，曹敏煥博士，以及千雄社長，表達我們的謝意！

1999年 6月 1日 於韓國漢城

韓國孟子學會 會長 趙駿河 謹識

賀 序

安 炳 周*

『用之則行하고 舍之則藏을 唯我與爾有是夫』¹저. 孔子가 好學第一로 꼽는 顏回에게 한 말씀이다. 세상에서 써주면 니아가 道를 行하고 세상에서 버리면 들어앉아 德을 닦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다.

그런데 行과 藏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쉬운 일도 아니다. 어쩌다 藏(은둔하여 덕을 닦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또한 흔히, 실패자에게 福PLAIN이 되기도 하고 자애로운 얼굴 보듯을 해 주기도 하는 老子와 莊子の 道家哲學에 心醉하게도 된다.

필자도 본시 儒家와 道家의 관계를 巨視的인 안목에서, 대립적이기보다는 相補的인 것으로 파악해 온 까닭도 있어 大學의 學部와 大學院에서 道家 쪽 古典의 강독을 오랜 동안 해 왔고, 藏할 수 밖에 없게 된 지금도 그 쪽의 강의를 몇군데서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老莊의 魅力에 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道家의 哲學에, 특히 그 否定的 論理와 萬物齊同의 철학에 깊이 沈潛하는 가운데서도, 필자의 마음을 儒家 쪽에 묶어 두는 堅固한 끈과 같은 무엇이 있어, 필자로 하여금 죽기 전의 「儒家宣言」을 어느 자리에서 공롭게 한 바도 있었거니와,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孟子」의 한 문장이다.

『한가지라도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짓지 않은 사람을 죽이고 천하를 얻는 일은 <옛 성인들이> 모두 하지 않을 것이

* 成均館大學校名譽教授

나 이것이 <성인들의> 공통점이다.(行一不義하며 殺一不辜, 而得天下는 皆不爲也리니 是則同하니라)』라고 한 말이다.

유명한 知言養氣章(浩然之氣章)에서, 이 세상에 生民이 있는 이래로 孔子와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다고 하여 「未有孔子」를 온 천하에 드러낸 맹자가 伯夷·伊尹·孔子와 같은 옛 聖人들의 공통점을 들어 제자 公孫丑에게 일러준 말이다.

行一不義하고 殺一不辜하고서는 得天下한다 하더라도 「안 한다」는 이 말이 어찌 보면 孟子 당시 사회의 混亂과 腐敗와 墮落의 反映일지도 모르나, 그것이 갖는 現代的 意義 또한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좋고 成就를 위해서는 背信도 不辭하는 세상을 우리는 흔하게 보아 왔고 앞으로도 흔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밖에도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性善說, 인간은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聖人개념의 內包的 변화」와 같은 理想主義, 또한 切於救民의 心情에서 今樂(俗樂)과 古樂(正樂)이 같다 하고 湯武의 放伐를 合理化한 民本思想과 革命論 등 孟子의 사상은 지금도 그 현대적 조명이 가능한 매력 포인트가 豊富다.

趙駿河 회장을 비롯한 孟子學會 任員들의 勞苦의 結晶으로 『孟子研究』가 續刊된다. 진심으로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1999年 6月 15日 以健齋에서

韓國語論文

韓國孟子學會 任員 名單

顧問: 劉明鍾(圓光大) 金忠烈(前高麗大) 安炳周(成均館大) 崔根德(成均館大)
尹絲淳(高麗大) 張岱年(北京大)

會長: 趙駿河

副會長: 金益洙(韓體大) 琴章泰(서울大) 柳仁熙(延世大) 鄭仁在(西江大)

幹事: 趙成植(總務) 金恒洙(研究) 李明洙(編輯) 金德均(涉外)

學術理事: 裴相賢(東國大) 宋嵩鎬(延世大) 李貞馥(경원大) 宋在雲(東國大)
李相珣(春川教大) 崔鍾庫(서울大) 金容傑(誠信女大) 趙南國(江原大)
李文遠(中央大) 孔錫英(同德女大) 梁承武(中央大) 李範直(建國大)
宋恒龍(成均館大) 黃義東(忠南大) 吳二煥(慶尙大) 金弼洙(東國大)
李東熙(啓明大) 金聖基(成均館大) 鄭花順(清州大) 高大嶽(仁川教大)
朴洪植(慶山大) 閔吉峰(宮中文化會會長) 權五興(典禮研究委員長)

中國學術理事: 崔龍水(北京黨校) 葛榮晉(中國人民大) 周 彪(山東師範大)
王基俊(山東社科院)

編輯委員: 趙駿河(同德女大) 金益洙(韓體大) 裴相賢(東國大) 琴章泰(서울大)
趙南國(江原大) 鄭仁在(西江大) 柳仁熙(延世大) 李範直(建國大)
李東熙(啓明大) 朴洪植(慶山大) 高大嶽(仁川教大)

任員任期: 1997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原稿募集要領

1. 원고마감(約稿結止日): 2000年 5月 30日
2. 집필요령(文稿內容要點)
 孟자의 學術思想에 관한 諸般研究
 (關於孟子之學術思想的諸研究)
3. 집필 분량(文稿份量)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200字稿紙, 100頁左右)
4. 투고방법(投稿方法)
 - 1) 디스켓과 3부의 출력지 송달
 (清楚之文稿)
 - 2) 영문표기 병기
 (用英文書寫論問題目和作者姓名)
 - 3) e-mail: jo4123@www.dongduk.ac.kr
5. 게재방법(審查方法)
 - 1) 편집위원 11명중 8명이 동의할 때 게재.
 - 2) 원고매수 집필 범위 등의 문제도 동일함.
 (根據文稿內容與份量, 11名審查委員中有8名同意時可登載.)
6. 접수처(接受處)
 - 1) 韓國 漢城市 城北區 月谷洞 同德女大 教養學部, Tel: 02) 940-4123
 - 2) 韓國 漢城市 東大門區 祭基洞 149-4 趙駿河, Tel: 02) 923-5462

目次

■ 刊行辭	趙駿河… i
■ 序 文	趙駿河… iv
■ 賀 序	安炳周…vii

韓國語論文

□ 孟子思想의 現代的 再照明	趙駿河… 1
□ 孟子의 教育思想 研究	孔錫英… 33
□ 孟子의 生涯	劉明鍾… 63
□ 孟子의 倫理觀과 現代社會	沈昌暖… 91

中文論文

□ 傳統的人性教育與孟子的人性論	趙駿河…103
□ <<孟子>>對<<明夷待訪錄>>的重要思想理論淵源	衷爾鉅…114
□ 孟子的認識論 -反映論, 可知論	劉鄂培…124
□ 孟子與<<詩>>	孫開泰…145
□ 孟子與<<易>>	呂紹綱…156
□ 習性之爭與孟子的理想人格	丁禎彥·晉榮東…165
□ 孟子在中國經學發生史上的地位	姜廣輝…183
□ 孟子和韓非治國方略之異同兼評儒法王霸之爭	姜林祥…204
□ 孟子教育思想簡論	胡新立…215
□ 孟子知識論再探	蔡方鹿…229
□ 論孟子的“仁政”思想及其對中國封建政治的影響	陳延斌…236
□ 孟子教育思想芻議	張欣莉…244
□ 孔·孟代表的儒家社會思想與巴哈伊教社會思想之比較	牟宗範…249

目次

□ 孟子概說	劉培桂…282
□ 孟氏六種家志校讀札記	張延齡…291
□ 先秦諸子道德教育思想探源	黃仁賢…301
□ 關於儒家汲汲于仕途的全面思考	修建軍…311
□ 從孫中山近代道德思想看孔子思想的現代價值	王 傑…319
□ 孟子生卒新證	楊澤波…329
□ <<孟子>>傳記博士問題的學術史考察	楊海文…339
□ 孟子與齊文化	梁宗華…355
□ 孟子劫文	朱高正…364
□ 論黃宗義對於孟子的理解	劉述先…378
□ 孟學六論	王 煜…394
□ 弘揚孔子聖學，創造新世紀文明	鄭彝元…399
□ 簡論孟子的家庭思想	李 欣…405
□ 孔子“仁”的教育思想及現代意義	孔令昭…412
□ 孟子的教學思想	金益洙…419
□ 孔子人學論綱	朱仁夫…428
□ 孔子及其學說的歷史命運	呂文鬱…440
□ 談儒家思想的現代意義	楊瑞文…463
□ 談孟子對文學的影響	趙成植…473
■ 韓國孟子學會 會員	485

孟子思想的 現代的 再照明

趙駿河*

一. 緒言

요사이 金大中政府에서 제2建國運動을 展開하는데, 그 理念的 基盤을 傳統儒敎에서 찾으려는 試圖가 推進되면서, 精神文化研究院에서 研究를 始作했다.¹⁾고 한다. 晩時之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正體性을 찾으려는 뜻에서 當然하며, 또 現代의 混亂한 社會에 秩序를 賦與한다는 점에서 歡迎할 만한 일이다.

現代는 모든 나라들이 科學技術, 經濟發展 등 物質的 價値에만 精神을 쏟고, 敎育에 있어서도 科學技術 敎育이나, 語學 數學 등 道具科目에만 置重하며, 人性敎育을 度外視하고, 倫理道德에 대하여서는 疏忽하니, 紀綱은 解弛되고 道德性은 頽敗되어 不正 腐敗가 天下에 蔓延하고, 人命을 輕視하여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해치고 甚至於是 子弑其父 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西洋의 잘못된 價値觀에 의하여 이루어진 現代 政治制度上的 問題와 物質, 經濟만을 尊重하는 資本主義的 敎育에서 오는 人間性 喪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本稿는 東洋의 王道政治 思想과 人性論의 代表者인 孟子의 思想에서 政治思想과 人性敎育의 問題 등 東洋의 經傳的 思想을 통하여 現代的

* 同德女子大學校 敎授 韓國孟子學會 會長 韓國程朱學會 會長

이 논문은 연구년 기간(1997년)중에 연구한 논문임.

1) 1999년 3월 16일 東亞日報 政治면